

송상현 학장과의 인터뷰



본지에서는 지난 10월 14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올해 1학기에 새로 법대 학장님이 되신 송상현 교수님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양일 합쳐서 약 1시간 반정도 소요되었으며 여기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실지는 않고 주요 부분을 간추려 쓴다.)

송상현 교수님은 지난 6월 3일에 새로 학장님이 되셨다고 한다.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케줄이 빠빠한데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약속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하셨다. 법대 내의 문제점으로도 학장님께서는 우선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의 접촉이 적고 그 학생이 교수를 찾아오는 경우도 약속을 미리 정하지 않고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학

교과 교수님 서로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또 그 사제간의 인간관계는 일생 동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각 대학의 개별화 특성화 경향에 대해서는 법과대학의 경우 그 본질이 직업교육인지 교양 교육인지가 불분명 하

며 앞으로 직업교육 쪽으로 특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학부 과정이 없어지면서 연구와 강의를 교수들이 분담하게 되어 현재와 같은 외국 지식의 전수 상인 역할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법대 도서관 매점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이며 그 이유는 책을 놔둘 장소가 모자라 15평 남짓 되는 그곳을 책고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그 매점에서 라면을 팔아서 법대 내가 좀 지저분해 졌다고 지적하시면서 법대가 좀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라면을 법대 안에서 먹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도 매점 폐쇄의 의견이 나온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법대의 공간 문제에 대

해서는 학생들의 자치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학생들에게 공간을 주고 싶어도 본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곧 환경 대학원이 독립하여 다른 건물로 나가게 되지만 그 공간도 법대에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본부 마음대로 다른 단대에 그 공간을 줘 버릴 수도 있다고 하셨다.

교수님께서는 바람직한 교수상에 대해서 교수는 사회적 역량 즉 교섭과 인화, 친화, 행정 능력 등 과 학문적 역량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둘 중 비중을 어느 곳에 두기는 어렵다고 하셨다. 그리고 교수들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교수로써 학계에서 연구한 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나 그것을 정치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답해주셨다. 그리고 지금의 교수들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었으며 나중에 질서가 잡히면 미국처럼 우리나라로 학자들의 정계 진출이 더 활발하고 자연스러워 질 것이라고 하셨다. 교수님 자신에게도 정부의 교섭이 두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셨다고 한다.

법학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는 교수님께서 회장을 맡으신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학 전문대학 원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이것은 전국의 5내지 10개의 대학에 설치하며 일반 대학원이 아닌 별개의 대학원으로 일반 법학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신생 분야에 대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법학 석사가 된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로스쿨제도와 마찬가지로 대법원과 법조계의 반발로 실시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법학 교육의 개혁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지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민법 총칙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하셨다. 1학년때 전공과목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이 봉 떠서 법대에 대한 소속감 없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다.

교수님의 학창시절에 기억 남는 일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질문에는 별로 크게 기억 남는 것은 없으며 12시간이나 걸려 가며 아주 어렵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던 것과 모의재판을 하면서 법조계에 먼저 진출해 있던 선배들과 이야

기를 나눈 것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교수님이 학교 다니실 때는 사회 상황 때문에 학교가 문닫는 일이 많았으며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 여행, 음악 등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장님께서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집회나 학생회 모임에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고 하셨다.

이번에 새로 바뀐 법대 학생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법대 학생회는 다른 단대 학생회보다도 더 원칙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하며 이전에는 법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의 학생회는 옛날에 비해서는 패기가 많이 줄은 것 같지만 다른 단과대보다는 활동이나 태도가 낫다고 생각되며 대의 명분을 중시하며 학생 복지 증진, 나라와 사회 및 학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